

보도시점

2023. 9. 24.(일) 11:00
9. 25.(월) 조간

배포

2023. 9. 22.(금) 16:00

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국 확산 차단 공동 대책 발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 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업체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업체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확산 차단 대책 주요내용
 2.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확산 차단 대책 참고 이미지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홍금용 (044-201-2546)
	행안부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효식 (044-205-6190)
		담당자	사무관	장 혁 (044-205-6191)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곽충신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492)



① 5-2광역울타리 밖 멧돼지ASF 발생 지역 인근 포획 활동 강화(농식품부·환경부)

- ① (영덕 지역) 청송군 시가지를 경계로 청송군(남쪽) 지역에서 집중 포획
 -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포획단 일시적 투입하여 집중 포획 실시
- ② (상주 지역) 상주시에 인접한 옥천, 영동, 김천에서 상주 방향 포획
- ③ (예비 방어선 구축) 시가지·고속도로·국도를 연계한 예비 방어선* 2개소 구축
 - * 1차 방어선(상주-대구-울산), 2차 방어선(상주~고령)

② 5-2광역울타리 시설 보완 및 관리 강화

- ① (상시 문 열림 방지) 지역 주민 출입으로 인해 '상습 문 열림'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 출입문 150여 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 보완 설치(환경부)
- ② (광폭 출입문 열림 관리) 차량이 출입하는 광폭 출입문은 농작업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16시 이후에 '문 닫힘' 여부를 점검하고 닫음 조치(환경부)
- ③ (특별점검반 운영) 5-2광역울타리 전 구간 취약구간 점검·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③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엽견 방역관리 강화

- ① (포획단 관리 강화) 엽사 및 포획장비 소독실태 주기적 점검, 지자체별 엽사 거점 소독시설 설치 신규 지원(환경부·지자체)
- ② (엽견 등록관리제) ASF 양성 멧돼지 포획에 참여한 엽견이 타지역 이동에 따른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엽견 등록관리제' 시범사업 추진(농식품부)
 - * 제도 도입전까지 '가전법 19조2항'에 의거 전염병 확산 우려 엽견에 대해 '타 시군 이동 금지' 행정명령 시행

④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 고도화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농식품부).

① (신속 상황 전파) 멧돼지 ASF 정보를 KAHIS에서 실시간 SNS 제공

* (현행) 환경부 → 농식품부(공문) → 지자체(유선) → 농가(도달 시까지 1~2일 소요)

② (서식지 공략 방역) KAHIS에 멧돼지 출몰 위치(2천건/1주) 제공하여

멧돼지 예상 경로에 포획트랩·차단시설 설치 등 농가 자체 방역관리 강화

* 지자체 방역관리 부서에서는 멧돼지 포획·서식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관리

⑤ 농장에서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철저

① (축사 방역 관리) 들짐승 침입방지시설 설치, 사육동물 방목 금지, 이주

노동자 등 작업자 야생멧돼지 접촉·수렵 금지 등 교육 철저(지자체)

② (사료 관리)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청예사료는 ASF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ASF 발생 시군 청예사료 급여 금지 및 점검 관리(지자체)

⑥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포획·방역 관리

① (R&D 사업) 야생멧돼지 ASF 확산 이동 예상 경로 기반* 과학적

농가 방역을 위한 R&D사업 추진(농식품부, 환경부)

* 야생멧돼지 ASF 확산예측 연구 및 생태특성 연구 등 환경부 연구자료 연계

* 전국 확산에 대비하여 남진·서진방향 예상 시군 지역을 중심 R&D로 대응체계 구축

② (전문가 협의체 운영) 야생멧돼지 생태 전문가(기관, 대학)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남하·서진 상황에 따른 농가 방역 대응 역량 강화(농식품부)

③ (지자체 위험도 평가관리) 멧돼지 확산 우려가 높은*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멧돼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방역 관리(지자체)

* ASF 농장 발생 시군, 야생멧돼지 ASF 발생 초기 시군, ASF 발생 인근 시군 등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위험도평가 가이드라인은 중수본에서 제공)

1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 고도화



- 양성 및 음성 포획 멧돼지 위치를 KAHIS 웹페이지 내 지도에 게재



- 포획 사실을 10km 내 방역대 농가에 SMS 전송



- 농가 및 지자체에서 ASF 양성 여부 및 서식밀도 정보를 활용 가능

**환경부서, 방역부서, 지자체 협업으로
신속 상황 전파 및 서식지 공략 방역 체계 구축**



2 경북 야생멧돼지 예비 차단 방어선 구축

- 울타리 대신 경북 시가지 및 4차선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취락 지역에 포획트랩 설치, 전문 포획단 투입 등 → 야생 멧돼지 남하차단 신규 방어선(상주~울산, 상주~고령) 구축



경북내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 확산된
야생멧돼지 ASF의 추가 남하·서진 차단